

자유주의 교육 이념과 실천이 창조성에 미치는 제영향

서경대학교 한찬욱

1. 서론
2. 본론
3. 결론

1. 서론

교육의 목적을 정의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있다. 개인의 자기 발전, 자기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은 '全人'교육을 의미하고 개인의 잠재력과 창조성이 만개되서 충만한 삶을 영위하도록 이끄는 것이 목적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한편 사회는 일을 하고 생산을 해야만 유지가 되고, 지금처럼 극심한 국내적,국외적 경쟁의 시기에는 특히 사회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만 되고 따라서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직업 교육, 현실 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교육은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인간을 양성해야 된다는 소리도 드높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명이 발생한 이후 거의 모든 사회는 모종의 분업(division of labor)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좋은 직업도 있고 굵은 직업도 있고(물론 사회적으로) 또한 고귀하고 권세 있는

직업도 있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직업도 있다. 이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자기에 맞는 위치를 배분해 주는 어떤 기제가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서는 우수한 자는 좋은 자리에 열등한 자는 굵은 자리에 가는 것이 합당하고 우열을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에 의해서라는 즉 교육은 일종의 filter 또는 선발 방식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실제로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현실 교육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혼용되어 행해져 왔고 우리 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겠다. 그렇지만 교육의 목적에 대한 이런 제 정의가 다 개념적으로 양립 가능한 것은 아니겠고 사실상 상당히 모순되고 배치되는 면이 있는 데도 그것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어떤 한 사상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어서 그것

을 의식하지 못함으로써 간과하는 경우도 많겠다. 문제는 서로가 개념적, 논리적으로는 상충하는 그런 개념들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현실에서의 모순을 개념들의 모순으로 파악하고 그 개념들을 상호 비교, 연관성, 배치성등을 의식적, 추상적으로 연구해 보고 난 후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것이 얼마나 다양한 여러 면들의 통일인지 알 수가 있고 개념적 혼란을 막고 현실에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데 어떤 사상을 자기가 숨쉬고 있는 공기처럼 전혀 의식을 못한다는 것이다. 나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것이 한국의 교육에도 사실이고 지금부터 주장하려는 내용은 한국의 교육은 해방 이후로 소위 '자유주의 교육' 이념의 구현이고 그간 수많은 '교육 개혁'이 있어 왔지만 이 대들보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이 자유주의 교육 이념이 소위 말하는 '창조성'교육과는 개념적, 분석적으로 위배되는 면이 많다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이다.

즉, 한국에서는 우수한 자 하면 곧 지능이 우수한 자를 가리키고 지능이 우수한 자는 교육을 통한 시험 성적이 높은 자라는 인식이 만연하고 그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본질적으로는 옳은 이야기라고 상당수가 인정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에서 전인교육을 위한 것이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위한 것이든 간에 창조적인 인간 양성에 대한 소리도 드높고 따라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우열을 가리는 방법으로서의 교육과 창조성교육과의 연관성을 탐구해 보는 경우가 드물고 이것들의 현실적, 사회적 의미는 차치하고 이론적 개념적 분석도 전무한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소위 '자유주의' 교육 이념 즉 우수한 자와 열등한 자를 가리는 방법으로서 자유경쟁을 지지하는 교육 이념과 한편으로는 창조적인 과학자, 창조적인 인간 등등 창조성을 강조하는 교육 이념간의 관계를 경험적, 실증적

이 아닌 개념적, 분석적으로 한국의 교육 현실에 결부시켜서 천착해 보려고 한다.

2. 본 론

한국의 교육은 그간 수많은 '개혁'과 변혁이 있어 왔다. 주입식 내지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는 말들도 무성했고 과도한 시험 공부와 stress에 시달려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또는 심지어 자살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참교육'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다. 최근에는 '대학 교육 개혁'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고 있다. 세계적인 학자들을 배출하고 '세계화'에 걸맞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학 교육제도로는 불가능하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 '개혁'을 옹호하는 자든, 비판하는 자든 거의 언제나 같이 공유하는, 한국 교육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자유주의 교육 이념이 실제로는 '개혁'에서 주장하는 창조적 인간 양성과는 근본적으로 모순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개혁'은 요원한 얘기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보자.

95년 9월 25일자 교수 신문의 대학 정론이라는 column에 "대학 개혁은 가마솥처럼"이란 제하의 글의 일부분을 보자.

"독일은 유치원 단계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조기교육'은 금지시켰다. 고소득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부모들의 자식을 겨냥한 '지능 교육은 인간의 공동 생활의 출발점'에서부터 같은 조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출발점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독일 헌법 재판소가 판례로 확정한 이

‘출발점 평등의 원칙’은 우리에게서 유물이 되어 간다. 21세기에 우리가 살아 남으려면 창의력과 문화 감각이 뛰어난 독창적인 인재를 배출해야 된다. 세계의 흐름과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접목시킬 수 있는 폭넓고 깊이 있는 사고의 균형을 지닌 인재의 양성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column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전혀 다른 사상이고 윗부분은 경쟁에서의 ‘출발점 평등의 원칙’ 즉 동등한 기회를 강조하고 있고 후자는 독창적인 인재 양성이란 개념인데 이 두 개념의 연관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별개로 취급하고 있는 점들에 주의하자.

한편 우리 나라에서 자유주의 교육을 공개적으로 글로 써서 옹호한 사람으로는 소설가 이문열이 있는데 그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best-seller가 되었고 영화화되었다. 이 경우에도 이문열은 그것을 하나의 사상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자연적, 천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 책의 독자들도 그것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 실로 놀랍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 시골로 전학간 학생이 (놀랍게도 이 어린 학생은 모든 것을 경쟁의 관점, 우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거기에서 공정한 play를 하지 않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 갖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른 학생(화자와 똑같이 자유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인다.)을 결국에는 패자로 만들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은 game의 승자가 되고 좋은 생활을 영위하고 상대방은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이 이야기의 주요 내용인데 작가가 주장하는 것은 공정한 game을 해라. 그래서 승자는 사자의 몫을 차지하고 패자는 패자의 자리를 지켜라. foul play를 하는 자는 있어서도 안되겠고 있더라도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며 승자도 패자도 공정한 경쟁을 했으므로 각자 자신의 자리에 만족해야 할 것이며 자기 자신의 처지에 불평 불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이문열은 자유경쟁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보다는 (그의 책을 읽어보면 개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주로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관점을 이론적으로 표방한 대표적인 학자는 Harvard대학의 John Rawls교수로서 그는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이라는 책에서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갖는 자유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Original Position이라는 개념이나 또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 등은 많고 우리는 단지이 자유주의가 한국의 교육에 미친 영향, 특히 수확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 개념적 분석을 시도해 보겠다.

우선 자유주의에서의 핵심 용어가 된 ‘경쟁’이라는 개념을 분석해 보자. 경쟁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승자와 패자를 의미하며, 승패를 가름하는 일정한 척도 그것도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척도가 있음을 가리킨다. 특히 무수한 개인들(또는 사회 집단들?)이 경쟁을 하려면 그 참가자 전원(또는 대다수 또는 상당수)이 무엇을 놓고 경쟁하는 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경쟁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game의 rule에 어긋나고 어긋나지 않은지를 알아야 되고 그 rule 자체가 다수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을 살펴보자. 이것은 우선 시험을 통한 승패의 결정을 지시하는 것 같다. 시험은 무엇보다도 심판자의 자의적 주관에 기여할 여지를 주지 않고(특히 객관식 시험이 더욱 그렇다.), 부정이나 정실은 최소화하고 계량화의 장점 때문에 순위를 쉽게 매길 수 있는 보편적 척도로서 누구나(또는 대부분이) 쉽게 수긍한다. 또한 시험은 시험 볼 과목들이 고정되어 있고, 그 과목들의 내용도 미리 정해져 있고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도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취급해야 만 되겠고 사실 상 그렇다. 즉 모든 것이 표준화, 규격화되어서 주어질 길을 충실히 따라가는 자는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도록 짜여져 있어야겠다.(이것이 항상 수석 합격자에게서 바라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제 공정하고 합당한 rule, 절차가 주어졌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라는 개념을 분석해보자. 앞에서 인용한 교수 신문의 column의 '출발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유 경쟁에서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얘기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생물학적 환경, 개인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다 다른데 무엇이 출발점이고 무엇이 '균등'한 기회란 말인가? 이 개념은 구체적 현실적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에서 '균등'함은 재는 척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것은 아마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시험 공부에 열중한 시간이 주어지고(그래서 그 또는 그녀에게는 다른 일은 하지 말고 공부에 열중하는 것이 대중 매체의 message이고 우리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하루 24시간을 다 경쟁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잠정적,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것 같다. 그 나머지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 경쟁에 임하든 그것은 자유가 되겠다. 물론 이와 같은 자유주의 교육 이념이 우리가(또는 우리 조상들이) 언제 한 자리에 모두 모여서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효력이 있겠다. 우리 나라 방송 매체에서는 일년 중 대학 입시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는 달이 드물고 더욱 입시철이 되면 이를 집중 방송하고 또한 국민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워낙 중

요한 사안이, 특히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되어서도 그렇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경쟁할 기회가 주어지고 이 경쟁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자동 탈락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이렇게 대중에게 자유주의 이념이 자연스럽게 인지됨으로써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쉽게 뿌리 내리는데 방송 매체들이 일조 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화제 중의 하나는 과외 교육에 관한 것인데 국력 낭비니 망국병이니 하는 말들이 상투적으로 쓰이지만 이것은 앞부분에서도 강조했지만 '균등한 기회'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생기는 유사 필연적인 관계이기도 하겠다. 물론 앞에서 인용한 '출발점 평등의 원칙'을 극한적으로 밀고 나가면 과외는 '불공정한' play가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Cromwell 의 청교도혁명 중에 수평파들(levellers)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공정한 game을 하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빈손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경쟁을 주장했고 미국에서도 19c에 populist movement 중에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이는 아마도 그들 사회에서도 그랬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상형(ideal type)으로는 실현 불가능이기 때문에 결국 '출발점 평등의 원칙'은 애매한(아마도 현실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이겠지만) 개념이고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이 명백한 foul play라고 지정되지 않는 한 승리에 필요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느낄 것이고 실제로 과외가 상당히 효과적인 경쟁 수단이기 때문에 재원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과외를 했거나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할 것 같다. 또한 과외라는 화제가 대중 매체에 자주 오르내림으로써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경쟁을 하고 있고,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자신도 과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방송이 과

외를 널리 전파시키는 역할을 해 온 것 같다. (물론 이것은 경험적인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진위를 사실에 의해서 판명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다.)

자유주의 교육 이념이 본래 갖고 있는 장점들, '능력'있는 자는 타고난 신분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누구나(또는 대다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계몽적 역할 등등의 장점들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사회적 상황 즉 귀족계급이나 caste제도가 없이 타고날 때부터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위, 직업 등의 결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rule의 필요성에다가 방송 매체의 선전에 힘입어 이 이념은 우리들 대다수에게 '자연적 원리', '자명한 원리' 처럼 보여서, 또한 역사적으로 고려 광종 때부터 시험에 의한 자유경쟁, 선발이라는 사고 방식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만민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된 자유경쟁이라는 사상은 한국 사람들 특히 중산층의 뇌리에 깊숙이 뿌리 박혀서 이것은 수많은 여러 사상 중의 하나이고 또 다른 개념들하고도 필연적으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교육 이념이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자. 창조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도 난무하고 창조성의 원천에 대한, 비밀에 대한 연구도 일천하긴 하지만 창조성 자체가 발현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 조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려진 것 같다.

첫째로, 고정되고 정형화된 틀 안에서 사고하고,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교육 이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사고 방식의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그 또는 그녀는 주로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알아야 하고 다른 것은 경쟁에서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학

습하도록 부여받은 것을 주로 접하게 되고 대안적인 사고 방식이나 파격적인 경험 등은 상상도 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친구나, 선배, 친지 또는 선생님들의 사고방식도 이미 주어진 틀 안에서 사고하도록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적, 정신적 자극을 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정신은 둔해지고 사물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Solomon 말처럼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라는 관념이 알게 모르게 몸에 배게 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같은 시간에 등교하고 같은 시간에 수업을 받고 같은 교과서 (또는 유사한 교과서?)로 부터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배우고 정형화된 지식과 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사물은 이미 주어진 것, 고정불변의 것이라는 관념이 사고 속에 침투되고 사물의 다른 면을 보려고 하는 자는 부정적이라든가 엉뚱한 자라는 말을 듣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경향을 잠재우게 된다. 다양한 사고 방식과 사물에의 다양한 접근 방식 등을 알고 그것들의 진위나 연관성 등을 현재는 분간할 수 없을 지라도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고가 활동을 하는 것이 창조성의 중요한 원리이고 과학 발견의 중요한 첩경인데 자유주의 교육 이념은 주어진 틀을 깨부수는 자는 낙오자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사고 방식만 조장하는 것 같다. 즉 '다양성의 통일' 원리가 무시되고 획일적인 통일이 지배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이미 해답이 주어져 있으며 그 해답을 구하는 방법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game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것들을 암기 할 수 밖에 없고(다른 길은 불확실하고 전도가 험난하다.), 타율적으로 학습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사고의 본질인 '놀이'가 의무로 변하고 창조적인 유희는 사라지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간에 시험에 나올 것들을 알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념과 선택에 의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의 본질적 속성이 파괴되기가 십상이다.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교육을 하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경쟁'이라는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서는 파도처럼 부숴져 버린다.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고 그의 해결 방안을 자력으로 연구하는 것은 경쟁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이고 패자로의 왕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好惡에 관계없이 학습해야 될 과목과 내용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여하튼 그것들을 습득해야 하고 여기서 과학 발견과 창조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미적 감각을 파괴하게 된다. Hadamard가 강조했듯이 부분이 전체에 있어서 꼭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움인데 이와 같은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조화, 진정한 조화를 찾는 것이 심리적, 미적인 만족감을 주고 창조의 원천이 되는데 자유주의 교육 이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한가하고 배부른 자들이 하는 것이고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전혀 아름다움이 없다고 느껴서 하고 싶지 않더라도 삼켜야만 하기 때문에 미적 감각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파괴되고 너무 적응이 잘되어서 나중에는 그런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명확, 명백해서 애매성이 없는 것을 문제로서 제출해야 되므로 깊은 연관성을 맺는 분야들은 요구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 가능한 것들, 분절적인 것들이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깊은 사고를 요구하며 사물의 '위대한 연관성'을 바라보게 하는 분야들은 제외하게 마련이다. 즉, 사물들이 개별적 독립성이나 혹은 단선적 연관성을 강조하고 복잡한 연관성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계량화의 절대 명제 때문에, 상도가 된다. 곧, 단편적이고 암기 위주

의 교육이 자유주의 교육이념하에서는 半필연적인 것이다.

또한 이미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량이 있는 한은 '자연류(natural flow)', '자연성(naturality)' 이 들어설 여지가 없게 된다. 사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쫓아가면 저절로 道의 경지로 들어 설 수 있는 데 그것들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의식에 저절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라나오는 그러한 학습이나 사고가 최선의 방법이고 이는 위상 수학자 S. Novikov가 수학이나 물리학의 대가들은 항상 자연성을 구현한다고 말한데서도 쉽게 그 중요성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자유 경쟁하에서는 한가하게 자신에게 떠오르는 의문들, 그리고 타인과의 접촉에서 생기는 자극들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는 항상 나오될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목적을 향해 일편 단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즉 사고나 사상의 일정한 흐름이란 없는 것이다. 오직 목적지를 향해 매진해야 되겠다.

이와 함께 순위를 매겨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것 즉 쉽게 눈으로 판명할 수 있는 것만을 강조해서, M.Polanyi가 그 중요성을 설파한 '암묵적 차원'(Tacit Dimension)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 M.polanyi에 따르면 "작업상의 기술, 예를 들면 많은 측정이나 계산은 신속, 정확하게 하는 능력은 과학자에게 중요하지 않다. ... 그러나 연구 행위를 지시하는 편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연구 방법은 명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평범한 진보 - 예를 들면 모든 종류의 도해나 도표를 훌륭하게 작성하는 것과 같은 - 만이 규칙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연구의 규칙은 효과적으로 성문화할 수 없다. 그 밖의 모든 고도의 기법과 똑같이 연구의 규칙은 실천 가운데서 구체화할 뿐이다. 경험적 발견의 手續에는 Bacon에 의하여 계시되고 확립된 통속적 신

념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수집하고 그것을 자동 분석기에 넣어서 발견을 하려고 하는 Bacon의 처방전은 실제로는 회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훌륭한 작은 책은 분명하게 정신적 작업을 재현 했다가 보다는 발견이 지극히 미묘하고 개인적인 기술이며 더욱 그 기술은 어떤 형식화된 지침에 의해서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적인 것에 우수한 자가 과학적 발견이나 창조성에 있어서 우수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다. ‘감’(feel)이나 ‘직관’(intuition) 이 실제 발견에서는 결정적인자로 작용하고 형식화는 단지 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에 불과한데도 경쟁에서는 반드시 순위를 판가름해야 된다는 지상 명령 때문에 형식화가 최우선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도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우수한 자는 낙오하게 되거나 자신의 잠재성이 말살되어 버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머리’만 강조하고 ‘손’은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겠다. ‘손’으로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힘들기 때문에 주로 ‘머리’만을 쓰는 것을 순위 판단의 척도로 삼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지적, 정신적 발달에 끼치는 손의 절대적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 모든 지적 활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이에 상반하는 것이 되겠다. 이론과 실천의 상호작용과 반작용이; 지적 활동을 충만하게 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며 창조의 ‘기관차’가 되는데 자유 경쟁 하에서는 실천은 제2의 자리로 물러서야 된다.

3. 결 론

앞에서의 모든 논의는 주지하다시피 자유주의 교육 이념이 순수한 형태로 실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현실 상황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쟁 그 자체가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실상 경쟁은 아주 긍정적인 면도 많은데 경쟁이 극대화되어서 다른 모든 가치들을 압도해 버렸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다.

과학적 발견이나 창조에 있어서 교통(communiation)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경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동료들 사이에 우애, 신뢰가 사라지고 이것은 사회의 개인들을 고립자로 만들고 정보뿐만 아니고 기존의 지식을 보존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과학이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 할 만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도구로서 생각되는 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과학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없는 사회는 과학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창조성에 대한 논의들이 너무 물질적 뗏가, 경제적인 성공의 도구(그것이 개인에 관한 것이든, 기업들, 국가에 관한 것이든)로서만 생각하고 인간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 문화적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의 창조성을 발육 부진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구성원들 사이에 경쟁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건지 (혹은 창의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과도하게 서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창조성)이 떨어져 버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1. John Rawls , 정의론
2. C. B. Macpherson, 소유적 개인주의, 인간사랑, 1991
3.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4. D. Bohm & D. Peat, Science, Order, and Creativity, Bantam Books, 1987
5. A. Koestler, The Act of Creation, Dell Publishing Co. Inc, 1964
6. J. 아다마르, 수학 분야에서의 발명의 심리학, 범양사출판부, 1990
7. M. Polanyi, Personal Knowledge, The press of chicago university, 1958
8. M. Polanyi, 과학, 신념, 사회, 범양사출판부, 1990
9. 크로포트킨, 어느 혁명가의 회상, 겨레글터, 1985
10. A. Desmond and J. Moore, Darwin, Norton and Company, 1994
11. Federalist Papers, Garry Wills(eds.), Batam Books, 1988
12. 리차드 도킨스, 이기적인 유전자, 동아출판사, 1992
13. 스티븐 로우즈 외,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한울, 1993
14. 크로포트킨, 상호부조론, 형설출판사, 1994
15. 왓슨, 이중나선, 전파과학사, 1990